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통시장 안전투자 ‘뒷전’... 지자체 ‘뒷짐’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3> 위험에 노출된 시장, 불안한 동거

전통시장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일상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닌, ‘시한폭탄’ 처럼 눈에 뵈는 보일 정도로 안전 취약 요소가 곳곳에 노출돼 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영세 서민들은 비용 부담을 담보로 하는 ‘안전’에 투자하기를 뒷전으로 미뤘고 자치단체들도 ‘살마, 괜찮겠지’라는 낙관주의와 무신경함으로 못본 척 지나치는 실정이다. 시장 상인들의 ‘불안함’과의 어색한 동거가 몇 년째,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전기·가스시설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열악한 전통시장의 안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양동시장·두암시장, 여수중앙어시장 등 19곳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만 보면 불량 소화기·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 불 꺼진 피난 유도등 등 제대로 갖춰진 시장을 손으로 꼽을 정도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교육도 생계에 밀린 형편이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을 맡았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영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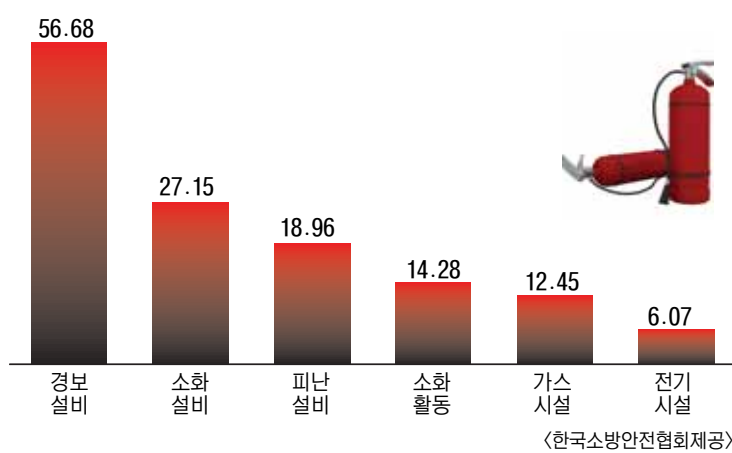
노후한 소방·전기시설을 못 미더워하면서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살기 힘든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냐”는 식으로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영세 상인들과 예산 부족 등을 내세운 자치단체의 무관심·무신경이 맞물리면서 전통시장의 ‘안전’은 불안하기만 하다. 광주 대인시장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낡은 소화기·거미줄같은 전선...화재 취약
미로같은 통로·상품 쌓인 복도, 대피 방해
전통시장 80% 자동 화재진압시스템 없어**

■ 광주·전남 전통시장 19곳 화재안전시설 불량률 (단위: %)



■ 전남지역 전통시장 현황 (단위: 곳)

구분	총계	구분	총계	구분	총계
목포	7	고흥	6	무안	3
여수	15	보성	8	함평	4
순천	8	화순	6	영광	3
나주	6	장흥	6	장성	3
광양	6	강진	3	완도	5
담양	3	해남	9	진도	4
곡성	3	영암	5	신안	1
구례	3				
합계 117					

(전남도 제공)



광주 양동·대인시장내 사라지고 각종 물건들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는 소화설비(왼쪽)들과, 무너진 천장에 매달린 물품들(맨 오른쪽).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숨어있는 소화전=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은 5분. 노후 건물에 미로같은 통로, 피난 통로 곳곳에 쌓여 대피를 어렵게 만드는 적치물로 초기 진화가 안 되면 전통시장 화재는 급속도로 번진다. 소화전과 소화기가 중요한 이유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시장 점포 또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인시장 내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시장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에 가려지는가,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상품 등은 상가 교차지점, 실내 공용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을 막아놓는 도구로 활용되기 일쑤였다. 소화기 설치 공간만 덜렁 남아있기도 했다. 화재가 나도 무용지불인 셈이다. 소화기 점검 날짜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오랫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이름만’ 소화기가 비치된 곳도 눈에 띄었다.

양동시장도 비슷하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양동시장에 대한 소화 설비 관리상태 등을 파악한 결과, 자동식 소화기·간이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 등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 소화기도 설치돼 있을 뿐 관리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안전협회가 기본 소화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700만원으로 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안전’에 우선된 셈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장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방안전협회는 초기 소화설비로 꼽히는 소화기의 경우

지난해 진단 대상 전통시장 점포수 대비 설치율이 3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80%는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 ‘야간이나 휴무일 등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경고했다.

◇막혀 있는 비상구, 꺼진 유도등=전통시장은 복잡한 미로 구조가 특징이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시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등은 신속한 대피를 위한 필수 시설이나 다름없다.

반면, 설치되지 않은 시장도 많을 뿐 아니라 설치된 양동·대인시장의 경우 천장에 설치된 통로 유도등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소방안전협회도 화재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양동수산전통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봉선시장, 여수중앙어시장, 양동닭전길시장, 두암시장 등은 통로유도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게들이 내놓은 짐 때문에 폭이 좁은 시장 복도도 문제다. 짐 때문에 겨우 다닐 정도로 불과한 구간은 비상시 대피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대인시장 내 2층 건물로 올라서자 폭 1m도 되지 않는 비상구 계단 입구에 병풍과 의자 등 장애물이 막고 있어 긴급한 대피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

대인시장에서 좁은 도로를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한 ‘주정차금지구역’은 벚가지 주차된 차량과 상인들이 내놓은 가판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 소방안전협회가 점검 대상으로 삼은 광주·전남지역 시장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나 제연설비를 갖춘 시장도 전무했고 비상벨·단독경보감지기 등을 갖춘 곳도 손으로 꼽았다.

◇시장 상인이 포기한 안전, 자치단체는?=김찬호(50)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진단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불이 쉽게 열 점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정기적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실상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당장 노후 소방·전기 설비 등을 교체하는 등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영세 서민들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민들의 ‘안전 최우선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ISHUI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